보도자료

2025년 5월 23일 충북 2025 – 20호

이 자료는 5.26일(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 목 : 주요국의 메가시티 조성 사례 및 시사점

□ 한국은행 충북본부(본부장 한승철)는 「충청광역연합」 설립(24.12월) 이후 메가시티 조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 사례의 성공 요인과 한계점을 충청권 광역연합에 적용하여 살펴보았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 주요국의 메가시티 조성 사례 및 시사점 1부.

문의처 :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전수현
Tel : 043-220-0593 Fax : 043-220-0596 E-mail : chungbuk@bok.or.kr

"한국은행 충북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 > 지역본부> 충북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연구자료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국의 메가시티 조성 사례 및 시사점

2025. 5

한국은행 충북본부

작성자 : 기획조사팀 과장 전수현(043-220-0593), 팀장 김광민

- 차 례 -

<요 약>

Ⅰ. 검토배경 ····· 1

Ⅱ. 충청권 광역연합 추진 현황 ····· 3

1.「충청광역연합」설립 현황 ····· 3

2.「충청광역연합」개선 필요사항 ····· 4

Ⅲ. 주요국의 메가시티 조성사례 ····· 5

1. 주요국 사례 ····· 5

가.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영국) ····· 5

나. 간사이 광역연합(일본) ····· 8

다. 광둥-홍콩-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지역(중국) ····· 11

라. 란드스타트(네덜란드) ····· 14

마. 파리 대도시권 연합(프랑스) ····· 17

2. 주요국 메가시티 사례 비교 ····· 20

가. 거버넌스 및 리더십 ····· 20

나. 인프라 및 산업전략 ····· 21

Ⅳ. 시사점 ····· 22

<참고문헌>

<요 약>

1. **2024.12월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는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 이하 '메가시티') 구축이 시작되었다.

1.1. **향후 메가시티 조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지자체 간 연합이 성공적인 메가시티 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국 사례의 성공 요인과 한계점을 충청권 광역연합에 적용하여 살펴본다.

주요국 메가시티 사례 비교

2. 「간사이 광역연합(일본)」과 「란드스타트(네덜란드)」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 간 신뢰를 형성하고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영국)」는 강력한 리더십이 권역 내 합의를 유도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였다.

3. 모든 사례에서 교통망 개선을 통해 초광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였다. 산업전략 측면에서는 거점도시별 전략산업을 기능별로 분업하여 성장시키는 동시에 집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산업은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통합을 유도하였다.

주요국 메가시티 사례의 주요 특징

사례	거버넌스 구조	리더십 모델	초광역 인프라	산업전략
광역 맨체스터	▪ 법적 권한 이양	▪ 직접 선출직 시장 (주민 선출)	▪ 교통망(트램, 철도) ▪ 도시 재생	▪ 디지털·제조업 중심 ▪ ICT, 바이오헬스 집적
간사이 연합	▪ 법적 강제성 없음	▪ 각 지자체장 협의	▪ 철도·공항 연계 ▪ 관광 인프라	▪ 관광 산업 연계 ▪ 산·학·연 협력 강화
광둥-홍콩-마카오	▪ 중앙정부 주도 ▪ 초광역 권한 집중	▪ 중앙과 지방정부 혼합	▪ 교량, 고속철, 항만	▪ 금융·디지털·첨단 제조 ▪ 국가 주도형
란드스타트	▪ 네트워크형 협력	▪ 개별 지자체 자율	▪ 철도·고속도로 네트워크	▪ 항만·물류, 금융 ▪ 그린하트 보존
파리 대도시권	▪ 광역 공공기관	▪ 간접 선출식 시장 (의회 선출)	▪ 광역 교통망 ▪ 도시 재생	▪ 환경·에너지·디지털 ▪ 경제 클러스터

시사점

4. **「충청광역연합」은 관광산업 연계 등 권역 내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과 교통편의 증대,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은 연합 내 강한 연대감과 결속력을 통해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시작으로 청주~세종~대전~충남을 연결하는 8자형의 순환형 관광벨트 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충청권 순환형 관광벨트

▸청주(디저트 카페) ~ 세종(행정타운) ~ 공주·부여(역사(백제)) ~ 보령·태안·당진(서해안) ~ 천안(역사(독립기념관)) ~ 대전(빵지 순례(성심당)) ~ 옥천·영동(문학, 자연) ~ 문경(새재) ~ 충주·제천·단양(충주호) 등을 순환형으로 연결

5. **「충청광역연합」은 광역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권역 내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 위임사무인 광역 간선 급행버스체계(BRT)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그리고 권역 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 간 상충 의견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국가교통망 건설 계획에 따른 인프라 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소통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도모해야 한다.

6. **「충청광역연합」은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정보에 기반하여 권역 내 연계에 따른 시너지가 장기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의 R&D 기능을 활용하여 권역 내 생산기지와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북(오송), 충남(천안)의 바이오 생산기지와 연계한 광역 바이오 클러스터, 세종, 충북(청주)의 화장품 생산기지와 연계한 광역 뷰티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7. **장기적으로는 충청광역연합장의 선출 방식을 현재 간선제(연합의회 선출)에서 직선제(주민 선출)로 전환함으로써 연합장이 대표성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업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8. **아울러 메가시티 조성 과정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권역 내 갈등 해소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Ⅰ. 검토 배경

□ 2024.12월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설치**하면서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

* 우리나라의 메가시티는 사실상 다수의 도시가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Mega-City Region(MCR)을 의미(<참고>「대규모 도시 구분」 참조)

○ 하지만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 재정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 사항이 나타나면서 연합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확대

— 최근에는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지자체별 견해 차이* 발생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세종】 독립적 지위(행정수도) 강화, 【충북】「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독자적 경쟁력 강화

□ 충청권 외에도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연합체형 광역행정기구 설립을 추진

「충청광역연합」 설립 과정

일자	내 용
20.11월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
23. 1월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 ‣ 규약 마련 → 시·도의회 심의 의결
24.10월	「충청광역연합 규약안」 행정안전부 승인 ‣ 연합의원 16명(시·도별 4명) 첫 회의 개최
24.12월	충청광역연합 정식 출범 및 사무 개시

국내 초광역권 추진 계획

	초광역권 명칭	참여 지자체
확정	충청광역연합	대전·세종·충남·충북
추진 중	대구경북특별시	대구·경북
	대전충남특별시	대전·충남
	부울경 경제동맹	부산·울산·경남
무산	부울경 메가시티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메가시티	전북·전남·광주

⇒ **지자체 간 연합**이 **성공적인 메가시티 조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성공 사례 분석** 등을 통한 **벤치마킹** 필요

○ 본고에서는 「충청광역연합」 추진 현황을 살펴본 후 메가시티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광역연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참고>

대규모 도시 구분

□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Metropolitan)의 인구 증가 및 광역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메가시티 지역, 메가시티, 메갈로폴리스 등 다양한 도시 개념이 등장

□ **메가시티 지역(Mega-City Region)**은 하나 또는 복수의 도시와 주변 지역이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역처럼 기능하는 지역으로 교통, 경제, 인구 흐름(생활권) 등을 상호 연결(기능적 통합이 핵심)

○ **거점도시**는 광역적 공간구조의 기능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

□ **메가시티(Megacity)**는 서울, 도쿄 등과 같이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단일 대도시*를 의미

* 행정적으로 하나의 도시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음

□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는 서로 인접한 대도시들이 띠처럼 이어져 있는 도시 벨트 형태이며, 각 도시들은 독립성을 유지

대규모 도시 구분

	개념	인구	대표 도시
메가시티 지역 (Mega-City Region)	10~50개 정도의 도시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하나 또는 복수의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	권역 내 인구의 합	‣ Greater Dublin(160만명) ‣ EMR Northern Switzerland(350만명) ‣ Rhine-Main(420만명) ‣ Central Belgium(780만명) ‣ The Randstad(900만명) ‣ RhineRuhr(1,200만명) ‣ Paris Region(1,600만명) ‣ South East England(1,900만명)
메가시티 (Megacity)	대규모 인구가 집적한 대도시	1,000만명	‣ 20개국 33개 메가시티 (The World's Cities in 2018, UN)
메갈로폴리스 (Megalopolis)	대도시가 연결된 초거대도시	2,500만명	‣ 미국 북동부 지역 내 도시(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들이 띠모양으로 연결된 도시군(Gottman,J.(1961))

자료 : 오용준 등(2021)

Ⅱ. 충청권 광역연합 추진 현황

□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한 초광역권 형태의 **메가시티 리전**(이하 '메가시티') 형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1.1월)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메가시티 조성의 설립 근거가 마련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19조 제1항)

► 이에 근거하여 2022년 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특별연합」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단체장 교체(2022.6월 지방선거) 이후 견해 차이 등으로 설립이 무산(2023.3월)

1. 「충청광역연합」 설립 현황

□ 2024.12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공동 사무의 광역적 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

「충청광역연합」 설립 과정

지자체 간 합의	⇒	지자체 간 규약(안) 제정	⇒	지방의회 의결	⇒	행안부 규약 승인	⇒	**특별지자체 설치**
2020.11월		2023.1월		2023.1월		2024.10월		**2024.12월**

○ 초대 연합장*은 충북도지사(임기 1년)가, 연합의회 의장은 충북도의회 의원(2년)이 맡았으며, 4개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4개 분야(교통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협력)의 20개 사무와 국가 위임사무 1개(광역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를 수행

* 특별지자체 의회에서 구성 지자체장 중 투표로 선출

— 2025년 광역연합의 예산 규모는 56억원(사업비 30억원, 운영비 23억원, 의회 3억원)이고 4개 지자체가 균등 부담

「충청광역연합」의 조직 구성 및 수행 사무

	주요 내용
조직 구성	■ 초대 연합장 : 충북도지사(임기 1년) ■ 초대 연합의회 의장 : 충북도의회 의원(임기 2년) ■ 구성 : 2개 사무처(연합사무처, 연합의회 사무처), 4개 시·도에서 60명의 공무원 파견 ► 연합사무처 : 1처 3과 11팀, 41명 ► 연합의회 사무처 : 1담당관 3전문위원 2팀, 19명
수행 사무	■ 4개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4개 분야* 20개 사무 * 교통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협력 ■ 국토교통부 위임사무 1개(광역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
예산	■ 2025년도 예산규모 : 56억원(사업비 30억원, 운영비 23억원, 의회 3억원) ► 4개 지자체가 각각 14억원씩 부담

자료 : 충청광역연합

2.「충청광역연합」 개선 필요사항*

* 하혜영(2025,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충청광역연합」의 한계 등으로 제시

□ 「충청광역연합」은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과 **재정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초광역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연합 구성원의 역할 분담도 불명확

○ 연합사무처는 특별지자체 운영에 재정상 어려움을 표명*

* 광역연합은 주요 현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책 마련을 건의(2025.3월)

□ 또한 광역연합은 자치권을 가진 지자체의 연합이므로 자율적 협력이 중요하지만, 최근 지역 간 **상이한 이해관계**가 **연합체**의 **결속력**을 **저해**할 우려 상존

○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추진, 세종의 독립적 지위(행정수도) 강화 가능성, 충북의 독자적 경쟁력 강화 정책(중부내륙 특별법 개정) 등이 지역 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형성

Ⅲ. 주요국의 메가시티 조성 사례

□ 성공적인 연합체형 메가시티로 평가되는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영국)」, 「간사이 광역연합(일본)」,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중국)」, 「란드스타트(네덜란드)」, 「파리 대도시권 연합(프랑스)」 등의 사례*를 분석

* 각 사례는 지역적,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추진 방식 및 사업 내용이 상이하므로 「충청광역연합」과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조성 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1. 주요국 사례

가.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GMCA)

영국의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GMCA)」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임한 다수의 권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메가시티의 대표적 사례로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성과를 함께 달성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 영국의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는 2011년 잉글랜드 북서부의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10개 지방정부*가 구성한 **법적 권한**을 가진 연합조직

* 맨체스터, 솔퍼드, 볼턴, 베리, 올덤, 로치데일, 스톡포트, 테임사이드, 트레퍼드, 위건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7차에 걸친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에서 중앙정부는 **교통, 주택, 고용, 경제개발, 보건, 치안 등** 다양한 부문의 **권한**을 **이임***

— 최근에는 교통, 주택, 기술 등 5개 분야의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이 강화

* 기존에는 분야별 칸막이가 원활한 자금 운용을 제약

「광역 맨체스터 광역기구」 개요

<위치 및 연합 구성>

자료 : GMCA

<설립 목적 및 연혁>

	주요 내용
목적	▪ 광역권 경제 통합, 공공서비스 효율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배경	▪ 경제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자율적 문제 해결 ▪ 지역경제 회복 전략 필요
연혁	▪ 2009년 : 맨체스터 10개 지자체 합의 및 GMCA 설계 시작 ▪ 2011년 : GMCA 공식 출범(법제화) ▪ 2014년 : 최초의 분권 협상 ▪ 2017년 : 광역시장 직선제 도입 ▪ 일곱 차례의 분권 협상을 통해 교통, 고용, 주택, 보건 등으로 기능 확대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

□ 핵심 사업으로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을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 또한 **ICT 집적,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등 **산업 통합** 정책을 진행

「광역 맨체스터 광역기구(GMCA)」의 주요 추진 사업

	주요 내용
교통	▪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트램,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하나로 통합 ▪ 광역 맨체스터 교통국(TfGM)은 교통체계 개선, 대기질 개선, 탄소배출 감축 등을 실현
주택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7개 주택협회 및 부동산 관리 회사로 구성된 주택개발그룹(GM Housing Providers Group)과 협력하여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1억 2,500만파운드의 주택기금 마련 ▪ 주거환경 정비,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도시 재생과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프로젝트 추진
투자 유치	▪ 광역 맨체스터 투자유치 기관(MIDAS)은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에게 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지역 내 투자 및 기업 이전을 촉진

기업 지원	▪ 기업지원 기관인 기업성장허브(Business Growth Hub)를 통해 GMCA 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이벤트, 자금 등을 지원
산업	▪ Manchester Digital, MediaCity UK(BBC 이전) 등으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 ▸디지털 클로스터 조성 및 콘텐츠 산업의 거점 구축 ▪ ICT 집적(북잉글랜드 최대 규모) 및 대학병원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자료 : GMCA

□ 「광역 맨체스터 연합」 출범 이후 **권역 내 총부가가치**(2010년 53.9억파운드 → 2020년 78.7억파운드)가 **연평균 3~4% 성장**

○ **고용**도 **13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실업률**(21% → 11%)이 **크게 낮아지는*** 등 **개선**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 인큐베이팅과 직업전환 교육이 청년 정착률 상승에 기여

○ 2012~2022년 중 **인구**가 **8%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가 안정*

* 특히 Mediacity UK(2011년 BBC 이전)가 소재한 Salford의 경우 2011~2021년 중 인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15.4% 증가

(평가)

□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GMCA)」는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성과****를 **함께 달성**한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 「지방자치 및 권한 이양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광역 행정권을 부여받고, 중앙정부와의 권한이양 협약을 통해 자율적 정책 결정 권한을 확보

** 지역 간 연합을 통해 교통, 산업, 기업지원 등 각 영역별 전략이 광역적으로 통합될 때 성장, 고용, 투자 등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음을 제시

○ 특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선출직 시장**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 및 협력 사업 등을 우수하게 추진

□ 다만 GMCA 내 **지역 간 격차**, 재정 자율성 제한* 등의 한계 존재

* 세금 징수, 예산 운용 등이 중앙정부에 통제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은 제한

나. 간사이 광역연합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합체 내부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식 형성 등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2010년 혼슈 중서부 간사이 지역의 12개 자치단체*가 구성한 **특별지방공공단체**

*【광역】교토부, 오사카부, 시간현,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기초】교토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고베시

○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방재, 관광·문화·스포츠 진흥, 산업진흥, 의료, 환경보전** 등의 분야에서 이임한 광역처리 사무를 담당

「간사이 광역연합」 개요

<위치 및 연합 구성>

자료 : 오영환(2022)

<설립 목적 및 연혁>

	주요 내용
목적	▪ 지방분권 강화 및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
배경	▪ 도쿄 중심의 수도권 집중 완화 ▪ 인구감소 문제 해결, 지방 및 중소 지역 쇠퇴 방지
연혁	▪ 2007년 : 간사이 광역기구 발족 ▪ 2010년 : 2부 5현 참여로 설립 ▪ 2012년 : 교토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고베시 등 4정령시 참여 ▪ 2015년 : 나라현 참여

자료 : 이정록 등(2017)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

□ 중앙정부의 이임 사무 내에서 **인프라 공유** 및 **산·학·연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의료·재난, 환경 문제 공동 대응** 등을 추진

○ 특히 광역 차원의 관광 정책과 공동 마케팅 전략 등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 **큰 성과**를 달성

— 외국인 방문객 수(2011년 210만명 → 2017년 1,222만명)가 크게 증가

— 최근에는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유치에 성공

* 2조엔 규모의 경제적 효과 기대

○ 또한 **의료, 재난 분야**에서 닥터헬기를 활용한 30분 광역 의료체계 구축, 광역방재체제 정비 등도 **주요 성과**로 평가

□ **일본 전체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권 형성

* 2040년까지 25% 이상 목표

「간사이 광역연합」의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

	주요 내용
인프라 공유 및 산·학·연 협력	■ 광역 차원의 교통·물류 운영 관리 ■ 생명과학·의료기기·신에너지 등 지역 주요 산업 산·학·연 협력 지원 (규제특례, 재정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 기업 간 협력 및 기술 혁신 촉진
관광산업 활성화	■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 ■ 2025년 오사카 엑스포(국가 협업, 2조엔 규모의 경제적 효과 기대)를 활용한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의료·재난, 환경 문제 대응	■ 닥터헬기를 활용한 광역 구급 의료체계 구축 ■ 동남해·남해 지진 발생에 대비한 광역방재체제 정비 ■ 코로나19 이후 감염증 방지 대책

자료 : 간사이 광역연합(関西広域連合)

(평가)

□ 「간사이 광역연합」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진 지자체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광역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우수 협력 모델**로 평가

○ 특히 수도권 집중 완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합체 내부의 긴밀한 협력 및 공동의식 형성**,

권역 내 산재해 있는 **대학**, **연구소**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작용

□ 다만 운영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제한**, **재정적 자립성 부족**,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정책 통합의 어려움** 등 많은 한계점이 나타남

○ 「간사이 광역연합」은 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에 기관 사무의 지속적인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간사이 광역연합」 운영의 한계 및 부정적 영향

	한계	부정적 영향
권한 이양 제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제한적	광역연합의 자율성과 집행력에 한계
재정적 자립성 부족	재정을 참여 지자체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적인 세입 기반이 부족	독립적 재정 운영이 어려움
법적 지위 불안정성	광역연합은 특별지방공공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그 권한과 기능이 불명확하게 규정	법적 안정성 부족
정책 통합 어려움	참여 지자체 간의 정책 우선순위와 이해관계가 상이	광역 차원의 정책 통합과 조정에 어려움 발생
시민 참여 부족	광역연합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적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다. 광둥-홍콩-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 GBA)

중국의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는 제도적 다양성과 지역 간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과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연합체라는 의미에서 다른 도시 연합과 차별화되지만,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간 시너지를 높인 사례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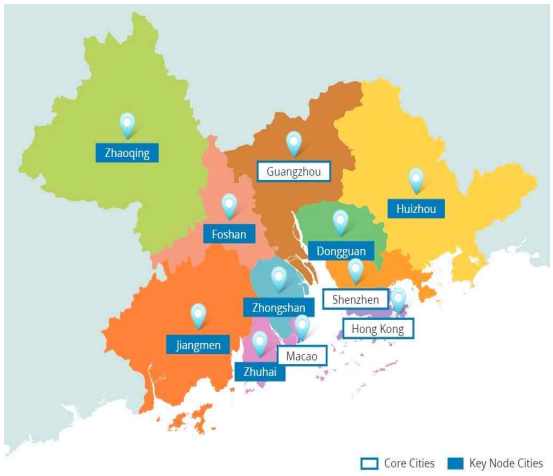
□ 중국의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는 2017년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 등 2개의 특별 행정구로 구성된 **초광역 연합체**

* 광저우, 심천, 동관, 중산, 후이저우, 마온산, 자오칭, 포산, 저장

○ GBA는 일국양제 체제하에서 중국 본토와 특별 행정구 간 경제·사회적 통합을 추진하려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결성**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책**을 **수행**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개요

<위치 및 연합 구성>



자료 : bayarea

<설립 목적 및 연혁>

	주요 내용
목적	▪ 글로벌 혁신 중심지 및 경제 허브 구축
배경	▪ 일국양제 하에서 중국 본토와 특별 행정구 간 경제·사회적 통합 추진 ▪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
연혁	▪ 2015년 : GBA 개념 최초 제시 ▪ 2017년 : GBA 건설 기본협약 체결 ▪ 2019년 : GBA 발전 계획 개요 발표 ▪ 20~23년 : 물류망 등 개발 본격화 ▪ 24년 이후 : 디지털 GBA, 금융 강화, 기술 인재 교류 확대 등 추진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는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건설, 고속철도망 구축, 심천 공항 확장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

○ 이를 통해 경제적 통합, 물류 효율성 향상, 글로벌 투자유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기대

— 특히 홍콩(국제 금융 및 물류), 마카오(관광 및 문화 교류), 광저우(상업, 교통, 교육 허브), 심천(혁신 기술) 등 주요 도시의 연계성이 강화

□ GBA는 첨단 기술, 금융, 교통, 문화 등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함으로써 2025년 현재 **세계 10위**(2019년 12위)의 **광역 경제권**에 도달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의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

	주요 내용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교량으로 이동 시간 단축 및 물류 비용 절감 ▪ 연간 1,000억위안(약 170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창출 기대 ▪ 2030년까지 GBA 경제성장에 2~3%p 추가 기여 예상
고속철도망 구축 (광저우~심천~홍콩)	▪ 2020년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25년까지 4,700km, 2035년까지 5,700km로 확장 예정(투자 규모 : 4,741억위안(약 727억 달러)) ▪ 인적·물적 교류 원활화로 경제 통합 및 물류 효율성 증대, 상호 투자 증진
심천 공항 확장	▪ 제3 활주로 확장, 국제 화물 터미널 건설,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등 (연간 1,500억위안 규모의 경제적 효과 창출 기대) ▪ 물류 및 여행 중심지로의 역할 확대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HKTDC)

(평가)

□ GBA는 **국가 주도형 전략**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 첨단 인프라와 하이테크 산업을 기반으로 도시 간 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및 기술 중심지**로 성장

□ 다만 **정치적·제도적 차이**가 **내재**해 있는 데다 성장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확대,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 또한 국가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환경 오염, 자원 고갈 등으로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운영의 한계 및 부정적 영향

	한계	부정적 영향
정치적·제도적 시스템 차이	일국양제 체제하에서 높은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마카오와 본토 간 정책 조정의 어려움	통합과 협력에 제약
도시 간 발전 격차	선도 도시(심천, 홍콩, 광저우 등)와 여타 도시(후이저우, 자오칭 등) 간 상대적 발전 격차 발생	지역 간 불균형 확대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문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환경 오염,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 발생	성장의 지속성 제약
사회적 불평등 및 인구 문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주택가격 상승과 생활비 증가 등으로 청년층 정착에 어려움 발생	사회적 갈등 심화

라. 란드스타트(Randstad)

네덜란드의 「란드스타트」는 법률에 근거한 조직은 아니지만 도시별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공동의 목표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이 실질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도시연합의 선도 사례로 평가

□ 네덜란드의 「란드스타트」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도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중서부의 주요 도시*들로 구성된 **다핵형 도시연합**

* 대표 도시 :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위트레흐트

○ **국가 차원**의 **공간 계획**하에서 **도시별 행정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통해 도시 간 연계를 촉진하는 **비공식적 협력 구조**를 형성

— **중앙정부**의 국토계획 내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권역 내 비공식 네트워크(시장 협의체, 공동 위원회 등)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

「란드스타트」 개요

<위치[1] 및 연합 구성>

<설립 목적 및 연혁>

	주요 내용
목적	■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메가시티 구축
배경	■ 균형 발전 전략 필요(도시 집중 문제 해결과 녹지 보존)
연혁	■ 1960~1970년대 : 국가 계획 반영, 그린하트 보존 정책 시행 ■ 1980~1990년대 : 대규모 교통망 구축, 항만, 공항 확장 본격화 ■ 2000년대 : Randstad2040 비전,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전략 수립, 중앙과 지방정부 협력 강화 ■ 현재 : 친환경 정책·스마트 도시화 가속, 교통·에너지 인프라 개선 지속

주 : 1) 네덜란드 서쪽 어두운 남색 표시 지역
자료 : OECD(2007)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

□ 「란드스타트」는 네덜란드 최대 경제권*으로 교통, 환경, 경제, 디지털 혁신 등 다방면에서 **초광역 도시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

* 네덜란드 GDP의 70%, 총 고용의 60% 이상을 차지

○ RandstadRail 프로젝트, 로테르담 항만 확장(Maasvlakte 2), 그린 하트(Green Heart) 보존 정책, Randstad 2040 비전 등이 대표적

— 특히 중심부의 대규모 녹지 및 농업지대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조성을 강조*

* 이에 대하여 유럽 환경 평가기관(EU-EEA)은 **란드스타트**의 **보존 모델**을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 모범 사례'**로 평가

— 도시 간 경쟁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중시

「란드스타트」의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

	주요 내용
RandstadRail 프로젝트	■ 주요 도시(로테르담, 헤이그, 주트르메어 등)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 로테르담~헤이그 간 경제 통합 강화 및 교통 혼잡 비용 절감 ■ 출·퇴근* 시간 평균 15~20% 단축 등으로 연간 수백만 유로 절감 추정 * 연간 4천만명 이용(2018년 기준)
Maasvlakte 2 (로테르담 항만 확장)	■ 연간 처리 능력 확대(항만 면적 20% 확장) 등으로 글로벌 물류 허브 강화 ■ 3만명의 신규 직·간접 고용 창출
그린 하트 (Green Heart) 보존 정책	■ 중심부의 대규모 녹지 및 농업 지대* 보전,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해 생태계 보존, 도시와 자연의 공존 모델 구축, 농업·관광 연계 산업 활성화 * 면적 : 1,600㎢, 란드스타트 전체 면적의 30% 이상
Randstad 2040 비전	■ 2040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대도시권 조성* *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차 충전소 5,000개소 이상 설치(2030년)), 주택 공급(60만호 신규 공급(2040년)),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 비중 50% 이상 달성(2040년))

자료 : RandstadRail(2018), OECD(2007), Dutch Ministry of Infrastructure(2012)

(평가)

□ 「란드스타트」는 **비공식적 협력 모델**(법적 근거 없음)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 유럽연합(1999)은 「란드스타트」를 다핵 분산형 공간구조의 선도 사례로 평가

○ **국가 전략에 따른 도시 간 효율적 기능 분담, 협상과 합의를 중시하는 폴더모델(Polder Model) 문화***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서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

* 갈등을 협의와 합의로 해결하려는 네덜란드식 협력 문화#

간척지(폴더)를 함께 관리하던 경험에서 비롯된 "함께 물을 막지 않으면 모두가 익사한다"는 공존의 철학

— 각 지자체는 국가 전략에 명확하게 제시된 도시별 기능 분담 원칙에 따라 도시 간 중복 없는 효율적 개발 계획을 수립

○ 또한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충**(RandstadRail 프로젝트 등)함으로써 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

□ 다만 도시 간 협력·조율의 한계에 따른 **통합적 정책 수립·실행**의 **어려움**, 주요 도시 중심의 발전 정책에 따른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 확대** 등이 지속적인 개선 과제로 제시

「란드스타트」 운영의 한계 및 부정적 영향

	한계	부정적 영향
정책 추진의 일관성 부족	공식적인 행정 통합이 아니므로 도시 간 협력과 조율에 한계가 존재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어려움 초래
지역 간 불균형	주요 도시 중심의 발전이 지속되면서 주변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의 발전이 저조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 확대
녹지 보존과 주택 공급의 충돌	그린 하트 정책으로 도시 확장이 제한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주택가격이 상승	사회적 불균형 심화(청년층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 하락)

마. 파리 대도시권 연합(Métropole du Grand Paris, MGP)

프랑스의 「파리 대도시권 연합(MGP)」은 법적 권한을 가진 광역 공공기관으로 재정적 자립과 도시계획 수립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확충, 고용 창출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실현한 메가시티의 우수 모델로 평가

□ 프랑스의 「파리 대도시권 연합」은 **「MAPTAM법*」**에 따라 2016년 파리시와 주변 13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연합체

* 공공영토 및 공공행정 현대화에 관한 법으로 인구 4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 도시 단위의 공공행정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

** 세느-생-드니, 발드마른, 에손, 오드센, 발드와즈 등 5개 주요 도시와 교외 도시가 포함

○ MGP는 파리 대도시권 발전 계획(그랑 파리)*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 기구**로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집행**

* 프랑스가 파리를 중심으로 광역 메가시티 형성을 위해 추진한 도시 통합 프로젝트

「파리 대도시권 연합」 개요

<위치 및 연합 구성>

자료 : Métropole du Grand Paris

<설립 목적 및 연혁>

	주요 내용
목적	■ 수도권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배경	■ 파리와 주변 지역 간 격차 심화, 교통·환경 문제 등의 해결 필요성
연혁	■ 2007년 : Grand Paris 프로젝트 발표 ■ 2010년 :「Grand Paris Act」 제정* * 파리 및 주변 지자체 통합계획 법제화 ■ 2014년 :「MAPTAM법」 제정* * MGP 법적 근거 마련 ■ 2016.1월 : 파리 대도시권 연합 출범 ■ 2016년 이후 : 대규모 지하철망 건설 착수 및 기후 계획, 도시 재생 등 통합 정책 추진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

□ 「파리 대도시권 연합」은 **교통망 확충, 도시 재생, 에너지 전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 특히 대규모 지하철망 건설, 주택 공급 확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이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경제 클러스터(Paris-Saclay 등) 개발은 첨단 과학기술산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MGP는 수도권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지속

「파리 대도시권 연합」의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

	주요 내용
Grand Paris Express (대규모 지하철망)	▪ 신규 지하철망(200km) 건설(4개 신규 노선과 68개 신규 역, 진행률 : 35~40%) → 파리 외곽 지역의 접근성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 ▪ 연간 11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완공 후 GDP 성장에 2~3%p 기여 예상
도시 재생 및 주택 공급 확대	▪ 외곽 지역 재생을 위해 10년간 25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 * 2022년 기준으로 10만호 착공, 이 중 6만호 준공 ▪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5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 기대
경제 클러스터 개발 (Paris-Saclay 등)	▪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연구기관 및 기업 집적으로 글로벌 혁신도시로서 파리의 위상이 강화 * 지구 내 연구소·스타트업 수 900개 돌파(2022년) ▪ 파리-사클레이 지구는 연간 GDP 성장에 150억유로 기여 추정
에너지 전환 및 환경정책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 인프라 구축 → 2022년(2015년 대비) : 탄소 배출량 12% 감축, 태양광·풍력 비중 18% 달성 ▪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연간 1만개의 신규 녹색 일자리 창출 예상
스마트 시티 및 디지털 인프라 확대	▪ 스마트 교통, 공공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혁신기업 투자 증가 및 ICT 분야 고용 확대 기대 ▪ 파리 시내 및 주요 연합지구에 공공 와이파이 85% 보급 ▪ 스마트 교통시스템(교통 혼잡 감지 센서 등) 시범사업 5개 구역에서 운영

자료 : Métropole du Grand Paris, OECD

(평가)

□ 「파리 대도시권 연합」은 제도적 기반하에서 경제적 효과 및 시민 편의 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한 메가시티의 우수 모델로 평가

○ 특히 지역 간 **수평적 연계**와 **장기적 관점의 인프라 투자** 등으로 교통체계, 환경정책, 균형 발전 등에서 긍정적 변화의 기반을 구축

□ 다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 **도심 집중 현상 지속**,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 지연 등의 한계도 존재

「파리 대도시권 연합」 운영의 한계 및 부정적 영향

	한계	부정적 영향
행정 복잡성과 조정 한계	130개 이상의 자치단체 연합으로 지역 간 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행정 집행이 복잡	효율적 사업 진행에 차질 발생 우려
예산 초과와 사업 지연	Grand Paris Express 등 초대형 사업에서 예산 초과 및 일정 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일부 구간 최대 5년 지연)	재정 부담 증가
주택시장 불균형	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심부 주택가격 폭등 현상 지속	무질서한 도시 확장 (urban sprawl)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	교통, 주택 등 대규모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 증가	그린 인프라 구축 저해
사회적 갈등	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현상) 발생 등	기존 주민의 소외감 확산

2. 주요국 메가시티 사례 비교

□ 주요국 메가시티 사례의 주요 특징을 **거버넌스, 인프라, 산업전략** 등의 측면에서 비교

가. 거버넌스 및 리더십

□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GMCA)」는 **강력한 리더십***이 권역 내 **합의를 원활하게 유도**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

* 특히 GMCA의 메트로 시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 「간사이 광역연합」과 「란드스타트」의 자율적 협력구조는 법적 강제성이 약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협업체계 구축이 **도시 간 신뢰를 형성하고 결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광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사이 광역연합」과 같은 **도시 간 강한 결속력 형성이 중요**

거버넌스 및 리더십 비교

사례	거버넌스 구조	리더십 모델	사업 추진 방식
GMCA (광역 맨체스터)	■ **법적 권한 이양**	■ **직접 선출직 시장** ▸메트로 시장[1]	⇒ **강력한 리더십**
간사이 연합	■ 법적 강제성 없음 ■ 협력 체계 미약	■ 각 지자체장 협의	⇒ 초기 협의체 진행 후 정부 협력 강화
GBA (광둥-홍콩-마카오)	■ 중앙정부 주도 ■ 초광역 권한 집중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	⇒ 정부 협의체와 협치
란드스타트	■ 네트워크형 협력 (분권형)	■ 개별 지자체 자율	⇒ 대도시 간 협업체계
MGP (파리 대도시권)	■ **광역 공공기관**	■ 간접 선출직 시장[2]	⇒ 협의체 중심의 협력구조

주 : 1)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 전체를 대표하는 광역 단체장으로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
2) 「파리 대도시권 연합」 의회 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

나. 인프라 및 산업전략

□ 모든 사례에서 **교통망 개선**을 통해 초광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

* 이는 **시민의 편의성 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향후 정책 추진 시 지역 간 합의 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특히 「광역 맨체스터 연합(GMCA)」은 트램,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 거점도시별 전략산업을 **기능별**로 **분업**하여 성장시키는 동시에 집적을 통해 생산성 확대가 기대되는 산업은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통합**을 유도

⇒ **광역 교통망 구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업전략**(기능적 분업 및 통합)은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해 광역 연합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 다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발생한 **지역 간 불균형**, 「란드스타트」에서 발생한 **환경 보존과 개발의 충돌** 등은 **주의**할 필요

인프라 및 산업 전략 비교

사례	초광역 인프라	산업전략	긍정적 성과
GMCA (광역 맨체스터)	▪ 교통망(트램, 철도) ▪ 도시 재생	▪ 디지털·제조업 중심 ▪ ICT 집적,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가시적 효과 실현
간사이 연합	▪ 철도·공항 연계 ▪ 관광 인프라	▪ 관광 산업 연계 ▪ 산·학·연 협력 강화	⇒ 지역 간 시너지 효과 창출
GBA (광둥-홍콩-마카오)	▪ 교량, 고속철, 항만	▪ 금융·디지털·첨단 제조 ▪ 국가 주도형	⇒ 지역 간 시너지 효과 창출
란드스타트	▪ 철도·고속도로 네트워크	▪ 항만·물류, 금융 ▪ 그린하트 보존	⇒ 지역 간 상호 보완적 관계 형성
MGP (파리 대도시권)	▪ 광역 교통망 ▪ 도시 재생	▪ 환경·에너지·디지털 ▪ 경제 클러스터	⇒ 긍정적 변화의 기반 구축

Ⅳ. 시사점

□ 「충청광역연합」을 성공적인 메가시티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권역 내 **결속력 강화**(간사이 광역연합) 및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맞춤형 산업전략 수립** 등 도시경쟁력 향상(공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를 구축할 필요

○ 또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광역권 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중요

주요국 메가시티 사례의 주요 특징과 한계점 및 시사점

사례	주요 특징	한계점	시사점
GMCA (광역 맨체스터)	▪ 중앙정부 권한 이양 ▪ 메트로 시장[1] 중심 리더십 ▪ 교통·경제 분야 집중 투자	▪ 지역 격차 ▪ 재정적 자율권 제한	▪ 강력한 리더십 ▪ 교통망 확충 ▪ 산업 집적 ▪ 균형 발전 ▪ 재정 자율권 확보
간사이 연합	▪ 권역 내 강한 결속력을 통한 관광·재난 분야 협력 강화 ▪ 산·학·연 협력 활성화	▪ 권한 이양 제한 ▪ 정책 통합의 어려움	▪ 강력한 리더십 필요 ▪ 기능적 분업 ▪ 산·학·연 협력
GBA (광둥-홍콩-마카오)	▪ 국가 주도형 사업 추진 ▪ 교통인프라 확충, 산업 집적	▪ 정치적·법적 차이 내재 ▪ 지역 간 불균형	▪ 초광역 인프라 구축 ▪ 균형 발전
란드스타트	▪ 네트워크형 협력 구조 (법적 근거 없음) ▪ 대도시 간 기능적 분업	▪ 정책 통합의 어려움 ▪ 지역 간 불균형	▪ 기능적 분업 ▪ 균형 발전
MGP (파리 대도시권)	▪ 초광역적 거버넌스 ▪ 주거·교통·환경 등 핵심 과제 통합	▪ 거버넌스 구조 복잡 (조정 비용 발생) ▪ 지역 간 이해충돌 ▪ 재정부담, 사업지연	▪ 초광역적 거버넌스 ▪ 주거·교통·환경 등 공통 과제 추진 ▪ 지역 갈등 조정

주 : 1)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 전체를 대표하는 광역 단체장으로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

1 「충청광역연합」은 **관광산업 연계** 등 권역 내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과 **교통편의 증대,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

○ 이들 사업은 연합 내 **강한 연대감**과 **결속력**을 통해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

【사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간사이 광역연합**」 내 **구성원**의 **통일된 의지**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큰 성과를 달성 →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권역 내 구성원 간의 강한 결속력 형성**이 중요

○ 예를 들어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시작**으로 청주(디저트 카페) ~ 세종(행정타운) ~ 공주·부여(역사(백제)) ~ 보령·태안·당진(서해안) ~ 천안(역사(독립기념관)) ~ 대전(빵지 순례(성심당)) ~ 옥천·영동(문학, 자연) ~ 문경(새재) ~ 충주·제천·단양(충주호) 등을 연결하는 **8자형**의 **순환형 관광벨트**를 조성

충청권 순환형 관광벨트

2 「충청광역연합」은 **광역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권역 내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사례】 **모든 사례**에서 **교통망 개선**을 통해 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적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남 → 권역 내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광역 교통망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

- 특히 「광역 맨체스터 연합(광역교통체계)」, 「란드스타트(RandstadRail 프로젝트)」, 「파리 대도시권 연합(Grand Paris Express)」 등의 교통망 개선 사업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 국가 위임사무인 **광역 간선 급행버스체계(BRT)**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축

○ 권역 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 간 상충 의견**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정**

— 특히 내부 교통망을 **청주국제공항, 오송역(KTX 분기역)**과의 **연계성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교통망 개선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외부와 내부의 교통망 연결은 타 지역민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충청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국가교통망 건설 계획에 따른 인프라 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소통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도모

○ 아울러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에 대한 여론 형성을 충청권 전체로 확대

3 「충청광역연합」은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정보에 기반하여 권역 내 연계에 따른 **시너지가 장기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을 개편할 필요

【사례】「광역 맨체스터 연합(ICT 기업 집적,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등)」, 「파리 대도시권 연합(디지털 클러스터 등)」의 산업 통합과 **「란드스타트」**의 대도시 간 **기능적 분업 체계**가 경제성장에 기여 → 연합체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전략(산업 통합 vs 기능적 분업, 또는 혼용) 수립이 중요**

○ **대전의 R&D 기능(IT, BT, NT, 우주국방 등)을 활용**하여 권역 내 **생산기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예를 들어 충북(오송), 충남(천안)의 바이오 생산기지와 연계한 광역 바이오 클러스터, 세종, 충북(청주)의 화장품 생산기지와 연계한 광역 뷰티 클러스터를 조성

4 장기적으로는 **충청광역연합장**의 선출 방식을 현재 간선제(연합의회 투표)에서 **직선제(주민 투표)로 전환**함으로써 연합장이 **대표성**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업 추진력을 높일 필요

【사례】「광역 맨체스터 연합」의 메트로형 시장형 모델(선출직 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다수의 권한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제성장, 고용 창출 등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 → 중앙정부와의 협상력 제고 및 권역 내 원활한 협업 유도 등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 모델의 도입이 중요**

2011년 설립된 「광역 맨체스터 연합」은 지역 간 이해충돌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7년 주민 직선 광역시장 취임 이후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짐

5 아울러 메가시티 조성 과정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권역 내 갈등 해소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할 필요

참고문헌

박경현 외(202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 국토연구원, 159-206.

박일기(2022), 해외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 사례와 시사점, 한국산업단지공단, 2-7.

오영환(2022), 수도권에 대항하는 한·일 메가시티 비교, 중앙일보.

오용준 외(2021),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향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2021-07.

이가인 외(2024), 해외 대도시권 광역행정기구 사례 조사. 서울연구원, 1-18.

이정록 외(2017),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설립 논의과정과 추진체계 : 간사이경제연합회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3), 386 – 402.

장수진(2019), 광역 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GMCA) 기관 개요 및 추진 사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9.

하혜영(2025), 특별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의의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4.

Arjen J. van der Burg and Bart L. Vink(2008), Randstad Holland towards 2040 - perspectives from national government. ISOCARP, 2008(44), 1-11.

Yiran Zhao(2022), Bay Area Economic Integration in China, Lunds Universitet, 10-42.

apur(2018), Métropole du Grand Paris : 7 millions d'habitants. apur, 1-4.

____(2018), Diagnostic of the Métropole du Grand Paris Plan for Housing and Accommodation in the Metropolis. apur.

Centre for Cities(2017), 10 Years of Devolution in Greater Manchester, Centre for Cities, 2017(3), 2-27.

European Commission(1999), European Spatial Development Perspective, European Commission, 64-72.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2019), GREATER PARIS METROPOLIS IN ACTION,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2-21.

_____(2023), Greater Manchester Strategy : Progress Report Spring 2023.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2-12.

_____(2025), GMCA : CRSTS annual report 2023 to 2024,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3-21.

HKUST IEMS(2021), Hong kong & The Greater Bay Area : Integration & Distinctiveness. HKUST IEMS, 2-16.

HM Treasury(2017), Greater Manchester Autumn Budget 2017 Update : Further commitments between Government and the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GMCA) and the directly elected mayor, HM Treasury, 2-5.

_____(2017), Greater Manchester Agreement: devolution to the GMCA & transition to a directly elected mayor, HM Treasury, 3-11.

KPMG(2020), Keys to Success in the Greater Bay Area. KPMG China, 8-57.

metropolegrandparis(2019), GREATER PARIS METROPOLIS IN ACTION, Métropole du Grand Paris, 2-20.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1), 深化粤港澳合作推進大湾區建設. NDRC.

OECD(2007), Territorial Reviews: Randstad Holland, Netherlands. OECD, 27-213.

_____(2017), Multi-level Governance Reforms: Overview of OECD Country Experiences, OECD, 155-164.

_____(2020), Enhancing Productivity in UK Core Cities. OECD, 63-131.

PwC.(2019), Greater Bay Area Economic Overview and Development Trends, PwC, n.p.

PwC China.(n.d.). Greater Bay Area Insights. PwC China.

Simon Jeffrey(2022), 10 Years of Devolution in Greater Manchester. Centre for Cities.